

구약일반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저자: 리차드 프렛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김영택 (Friend Pastor)

제 2 강

하나님의 나라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need for sound, biblically-base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we are building a user-friendly, donor-support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five major languages (English, Spanish, Russian, Mandarin Chinese, and Arabic) and distributing it freely to those who need it most, primarily Christian leaders who have no access to, or cannot afford, traditional education. All lessons are written, designed, and produced in-house, and are similar in style and quality to those on the History Channel[®]. This unparalleled, cost-effective method for training Christian leader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won Telly Awards for outstanding video production in Education and Use of Animation, and our curriculum is currently used in more than 192 countries. Third Millennium materials take the form of DVD, print, Internet streaming, satellite television transmission,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http://thirdmill.org>.

구약 일반 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목차 (Contents)

제 2 강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I. 서론 (Introduction).....	1
II. 광의의 나라와 협의의 나라 (Broad and Narrow).....	2
A. 불변적 나라 (Unchanging).....	2
B. 발전적 나라 (Developing).....	3
III. 원시 역사 (Primeval History).....	6
A. 영토 (Place).....	6
1. 초기 준비들 (Initial Preparations).....	6
2. 지속적 확장 (Ongoing Expansion).....	8
B. 백성 (People).....	9
1. 제사장들 (Priests).....	10
2. 대리 통치자들 (Vice-Regents).....	11
C. 진전 (Progress).....	12
1. 무도한 대역 (Cosmic Treason).....	12
2. 부패와 심판 (Corruption and Judgment).....	13
3. 장기 전략 (Long-Term Strategy).....	14
IV. 이스라엘 국가 (Nation of Israel).....	16
A. 영토 (Place).....	16
1. 원 중심지 (Original Center).....	17
2. 확장 (Extension).....	18
B. 백성 (People).....	19
1. 이스라엘의 선택 (Selection of Israel).....	19
2. 제사장 나라 (Kingdom of Priests).....	20
3. 제사장들과 왕들 (Priests and Kings).....	21
C. 진전 (Progress).....	21
1. 약속 (Promise).....	21
2. 출애굽과 정복 (Exodus and Conquest).....	23
3. 제국 (Empire).....	24
V. 신약 (New Testament).....	27
A. 영토 (Place).....	27

1. 중심지 (Center).....	28
2. 확장 (Expansion).....	29
B. 백성 (People).....	30
1. 그리스도 (Christ).....	30
2. 신자들 (Believers).....	32
C. 진전 (Progress).....	33
1. 개시 (Inauguration).....	34
2. 존속 (Continuation).....	34
3. 완성 (Consummation).....	35
VI. 결론 (Conclusion).....	35
VII. 연구의 길잡이 (Study Guide).....	36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36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36

구약 일반 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

Kingdom, Covenants & Canon of the Old Testament

제 2 강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I. 서론 (INTRODUCTION)

영어에 세부 사항들에 몰두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이 있다. 흔히 그러한 사람을 “나무들은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비슷한 표현들을 갖고 있는 문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수많은 세부 사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들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세목에 몰두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뒤로 한걸음 물러나 큰 그림을 보라고 서로에게 일러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부 사항들이 큰 그림을 흐리게 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구약이다. 구약은 수많은 이름들과 장소들과 사건들과 신학적인 교훈들과 도덕적인 지시들을 담고 있는 광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약을 하나로 만드는 기본적인 시각들을 잃어 버린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때때로 당혹스러운 경험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뒤로 한걸음 물러나 구약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강의는 **구약의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이라는 구약 일반총론 강좌의 두번째 강의이다. 이 강좌를 통해 보게 될 것이지만,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언약들은 구약 정경 안의 책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설명되고 적용된다. 본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본 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라는 성경 신학을 바르게 이해할 때 구약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통일된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본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네 가지 측면을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광의적인 의미와 협의적인 의미로 말하는지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땅의 역사의 최초의 단계인 원시 역사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적 역사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살필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살필 것이다. 이 네 가지 주제들을 살핌으로써 우리는 구약 전체에 대한 폭넓고 일관된 관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먼저 구약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광의적으로 그리고 협의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II. 광의의 나라와 협의의 나라 (BROAD AND NARROW)

본 강의의 서두에 하나님의 나라를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넓은 의미에서 구약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며 불변하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관점이다. 둘째로,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관점이다. 먼저 하나님의 불변하며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보다 더 일반적인 관점을 숙고해 보자.

A. 불변적 나라 (Unchanging)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요, 보존자이시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창조주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에 대하여 확고한 왕권을 언제나 가지고 계실 것이다. 시편 93:1-2 을 들어보라. 거기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찬양을 본다.

(시 93:1-2)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분은 위엄으로 옷 입으셨고 . . . 그분은 권능으로 옷 입으셨다. 참으로 세계도 견고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님의 왕좌는 오래 전에 세워졌습니다. 당신님은 영원부터 계십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 주변 나라들의 종교와 크게 달랐다. 그 주변 나라들의 종교는 공통적으로 많은 신들이 주권을 위해 경쟁하고 신들의 힘이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강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가르쳤다. 어떤 경우에 신들은 그 해의 계절들의 주기들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다. 또 어떤 경우에 신들은 총애하는 나라들이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는 것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들은 성경적 신앙의 요소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온 세상 뿐만 아니라 천상 피조물 곧 소위 신들까지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왕권은 불변하다. 온 세상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분의 나라인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항상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또한 성경이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B. 발전적 나라 (Developing)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발전하고, 약해지고 강해지며, 결국 온 세상으로 확장될 때까지 성장한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왕권과 나라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대개 이 역사적 의미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볼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들 중의 하나는 주기도문의 첫부분을 보는 것이다. 마 6:9-10 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마 6:9-1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오게 하시고],
당신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구 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 온 세상을 항상 다스리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첫부분 말씀들은 우리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이미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요약하여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발전적인 역사적 왕권을 갖고 계신다는 구약의 가르침을 언급하신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여 그것을 변화시키므로 땅이 하늘을 반영해야 함을 가르치셨던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 6:9-10 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주목해 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고대 히브리시의 관행을 따라 세 개의 병행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구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설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임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추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어디서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땅이 하늘과 같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오게 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땅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므로 땅이 하늘의 기이함을 반영하게 되리라는 구약의 약속도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기를 구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였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이 땅 위에 그리고 이 땅에게 일어날 것임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천상 통치를 반드시 확장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니엘 7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상 통치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단 7:9-10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단 7:9-10) 계속해서 나는 옥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신 것을 보았다. 그분의 옷은 눈과 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에서 불꽃이 일었고, 그 바퀴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분 앞으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 나왔다. 천천히 그분께 수증들었고, 만만이 그분 앞에 서 있었다.

이 천상 묘사는 특이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천상 옥좌의 방에 관하여 말할 때마다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늘 통치에 대한 이 묘사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은 우리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실 때 그분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면전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분은 어디에든지 계신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실지라도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옥좌가 있는 방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옥좌에 좌정해 계시고 빛나는 하얀 옷을 입으시고 양털같이 하얀 머리카락을 갖고 계시다. 그분의 옥좌에서는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소멸하는 불이 그분의 옥좌로부터 흘러 나온다. 그분의 옥좌가 있는 방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현존은 압도적이다. 거기서 그분은 영광스러우시며, 눈이 부실 만큼 강한 그분의 광채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다.

천상 옥좌의 방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지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 보라. 우리가 땅에서 보는 것은 기껏해야 그분의 압도적인 천상의 광채를 희미하게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한 측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압도적인 광채가 하늘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땅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던 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계 21:23) 그 성은 해나 달이 그 위에 비칠 필요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의미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영광스러우시며 왕다우신 광채 가운데 땅에 오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현존이 천상 옥좌의 방에서 어떤 결과들을 낳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단 7:10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단 7:10) 천천이 그분께 수종들었고, 만만이 그분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의 옥좌 앞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겸허히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천상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의 결과는 하나님의 천상 나라가 땅에 온전히 임할 때 두번째로 땅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쉽게 저질러진다. 영적 존재이든 인간이든,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분의 통치에 반대한다.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새 땅에 이루어질 때,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멸망당하거나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 2:10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빌 2:10)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 꿇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적이고 역사적이고 지상적인 실재로 제시하셨던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특별하신 지상 임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널리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분의 장래 비전을 공유하라고 가르치셨다.

지금까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별하여 논의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발전을 추적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통일성을 보여주는지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흔히 원시 역사라고 언급되는 창 1:1-11:9 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필 것이다.

III. 원시 역사 (PRIMEVAL HISTORY)

우리가 원시 역사를 탐구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들을 살필 것이다. 첫째로, 성경에서 원시 역사를 다루는 부분은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둘째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분간하는가? 셋째로, 그것은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초기 진전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먼저, 원시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어떻게 확립하는지를 살펴보자.

A. 영토 (Place)

창세기를 시작하는 장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지구를 하나님 나라의 장소로 세우기 시작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의 지리적인 측면이 어떻게 두 단계로 계시되어 있는가를 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땅을 그분의 다가올 통치를 위해 준비하셨던 것을 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중심 장소에서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그 지리적 경계들을 확장하여 온 세상을 포함시킬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분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세상을 준비하셨던 방법들을 살피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자.

1. 초기 준비들 (Initial Preparations)

창세기 1 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가 될 세상을 준비하셨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세기 1 장의 제목은 창 1:1 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제목 다음에, 창 1:2-2:3 은 3 중 구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즉시 땅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의 장소로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셨음을 보여 준다.

첫째로, 창조의 이야기는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이 혼돈을 다룰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창 1:2 로부터 시작된다.

(창 1:2)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창 1:2 에 언급되어 있다. 한편으로,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어둠과 혼돈적 깊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 시점에서 땅은 있기에 즐거운 곳도 아니었고, 이상적인 곳도 아니었다.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이란 용어는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땅에서의 황량하고 사막같은 곳 곧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이 용어 이외에도 “어둠”과 “깊음”도 성경 전체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태초에 땅은 적대적이었고 생명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창 1:2 은 우리에게 땅의 역사의 시작에 관하여 또 하나의 극히 중요한 사실 곧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빛과 생명의 하나님은 땅이 초기 혼돈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둠과 생명 없는 세상에 대하여 움직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

창조 이야기의 두번째 부분은 창 1:3-31 에 나오는 6 일간의 정돈이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그분의 나라가 되기에 적합하도록 만드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6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통해 그분의 지혜와 목적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뚜렷한 패턴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는 해석자들이 많다.

전반 3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형태가 없었던 문제를 다루셨다. 후반 3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비어 있는 문제를 다루셨다. 더욱이, 이 두 세트의 3 일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서로 주목할만한 병행을 이루고 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낮을 만드시고 어두움을 밤으로 제한하셨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넷째 날에 하나님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창공을 만드시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 있는 물을 나누셨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들 사이의 창공을 채우시기 위해 새들을 만드셨고, 아래 있는 물을 채우시기 위해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풀이 우거진 비옥한 땅을 만드심으로써 아래 있는 깊은 물들을 제한하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을 채우시기 위해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혼돈의 세상을 놀랍도록 질서정연한 장소로 바꾸시며 유례없는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셨다.

우리는 창 1:3-31 에 반복되는 주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 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를 보실 때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그리고 창 1:31 은 우리에게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이 창조가 좋았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두움과 깊음을 현저하게 제한하시며 질서를 세상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사역을 승인하신 것도 일부 들어 있다. 그러나 “좋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טוֹב 토브]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이곳 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곳들에서 [토브]는 “즐거운”, “즐거움을 주는”, 심지어 “아름다운”이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옛세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어, 그것이 그분을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시며, 그분 자신의 뜻과 소원들을 반영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 2:1-3 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세번째 부분이 안식일에 대하여 것처럼 말하는 이유이다. 창세기 1 장의 서두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창 2:1-3 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셨던 것에 대하여 기뻐하셨다. 사실, 하나님은 땅의 초기 정돈을 아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쉬시며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요컨데, 하나님은 그분의 초기 준비들을 통해 이 세상이 그분이 원하시는 종류의 땅이 되어가는 길을 마련하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태초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서 이 세상을 준비하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웅대한 목적들이 그 이상의 후속적인 발전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지속적 확장 (Ongoing Expansion)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주간에 하셨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세상을 놀라운 낙원으로 만드시지는 않았다. 창세기 2 장은, 온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질서 정연하다고 할지라도, 지상에서 유일하게 한 장소만이 참으로 낙원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창 2:8-9 이 이 장소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들어보라.

(창 2:8-9)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지으셨다. . .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다. 그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 묘사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라. 미술가들이 색칠하기 전에 자주 그들의 화포에 연필로 스케치하듯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루셨다고 말이다. 그분은 즉시 땅이라는

전체 화포에 색칠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상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와 방향을 세우셨다. 그렇다고 하여 그림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하나님은 정말로 땅의 한 부분만을 화려한 색채로 그리시고 그 곳을 그분의 창조의 중심지로 돋보이게 꾸미셨다. 땅에서 그 지역은 에덴으로 불렸다. 에덴이 히브리어로 “즐거운” 혹은 “즐거움을 주는”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에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즐거움이었다. 더 나아가, 에덴의 중앙은 정원이요, 놀랍도록 아름다운 곳이요, 시선을 끄는 장대한 오아시스요, 왕에게 적합한 웅장하고 낙원같은 정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에 무소부재하시며 보이지 않게 편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에덴이란 땅과 특히 그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을 그분의 특별한 가시적인 임재의 장소로 선정하셨던 것이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셨던 곳이다. 그러나 에덴 동산과 에덴 땅은 세상의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였다. 세상의 나머지 부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질서 정연하였지만, 아직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에덴과 그분의 거룩한 동산을 온 세상의 아름답고 즐거운 중심지로 삼으시며 그의 통치를 위한 영토로서 땅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원시 시대에 대한 두번째 주제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펴 볼 것이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로 정하시어 이 세상이 그분의 나라가 되도록 준비하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다.

B. 백성 (People)

사람의 특별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해진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순서적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을지라도—심지어 매우 좋았을지라도—우리는 창 2:18 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2:18)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좋다”고 판단하셨지만, 그분의 특별하고 거룩한 동산에 “좋지 아니한” 것이 있음을 보셨다. 그것은 아담에게 아내가 없다는 점이였다. 그러나 이것이 왜 좋지 아니한 것인가? 요컨대, 그것은 한 사람이 그 혼자 힘으로 완성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할이 두 가지 면으로 묘사된 것에 주목하면, 이 과업이 한 사람에게 너무 컸던 이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섭정 곧 대리 통치자로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들을 창조하셨다.

1. 제사장들 (Priests)

첫째로,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직의 과업을 부여받았다. 그들은 예배의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이것이 하늘의 옥좌가 있는 방에서 피조물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었다. 그것은 또한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다. 창 2:15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2:15) 여호와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곳에서
섬기며[아바드] 그 곳을 지키게[샤마르] 하셨다.**

열핏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저 동산지기로 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실, “그곳에서 섬기며 그곳을 지키다.”라는 표현은 모세와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비슷한 표현들이 민 3:8 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던 일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민 3:8) 그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아바드] 이스라엘 자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켜야 한다[샤마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민 3:8 처럼]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전문적인 묘사를 반영하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는 모세 시대의 성막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곧 왕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지상의 장소에 놓여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동산을 아름답게 하고 보존함으로써 위대하신 왕을 경배하는 제사장적 일을 하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에서 일하면서 제사장들로서 그분을 섬겼다.

2. 대리 통치자들 (Vice-Regents)

둘째로, 아담과 하와는 또한 왕족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섭정)들로 임명받았다. 사실,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창 1:26 에서 볼 수 있다.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26)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직역: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창 1:26 을 비롯한 많은 구절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혹은 모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다. 과거에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표현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1 장의 초점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의 중요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고대 구약 세계에서 흔하게 이스라엘 안과 그 주변에 있는 왕들과 황제들을 “형상들” 혹은 “모양들” 혹은 심지어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던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왕들과 황제들이 이러한 칭호를 받은 것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왕적 존재들은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왕들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왕들과 황제들은 하늘에 있는 신들의 뜻이나 지혜를 먼저 배운 후 그들의 왕권을 사용해 그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시행하는 특별한 과업을 가진 것으로 믿어졌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왕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문화 배경을 고려하면 단지 왕과 황제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한 모세는 그의 시대에 급진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구약에 의하면, 고대 황제들이 신들을 대신하여 통치한다고 생각되었던 것과 아주 비슷하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다스리며 그분의 뜻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러한 왕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창 1:27-28 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역할을 진술하셨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모세가 창 1:27-28 에 기록한 것을 들어보라.

(창 1:27-28)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진 왕적 역할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은 세상에 일정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세우시고, 제사장들로서 그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그의 경이롭고 거룩한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형상 곧 왕같은 사람들이 번성하여 에덴 동산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할 것을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단지 에덴 동산 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하늘의 위대하신 왕은 사람들을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정해 놓으셨다. 사람들은 번성하고 널리 퍼져 가며 온 땅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세계 도처에서 제사장들로서 그분을 섬겨야 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땅에 두신 참 목적이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분의 나라를 위한 영토와 백성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원시 시대 동안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를 스케치해 볼 수 있다.

C. 진전 (Progress)

우리는 모세가 원시 시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세 가지 면에서 요약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위대하신 왕께 적대하여 일어났던 엄청난 반역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타락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증대하여 가혹한 심판을 초래하였는지를 볼 것이다. 그러나 셋째로, 우리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그분의 나라의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한 장기 전략을 계시하셨음을 살필 것이다. 먼저, 지상에서 일어났던 반역을 살펴보자.

1. 무도한 대역(大逆) (Cosmic Treason)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신에,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여 금단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그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땅끝까지 확장시키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운명에 처해졌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왕국 건설자들로서 사람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고, 여전히 번성하고 지배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그들과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로,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은 어려워지고, 좌절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다. 번성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와에게 창 3:16 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창 3:16) 내가 반드시 너의 임신의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고, 고통 중에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것에 관하여 창 3:17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창 3:17)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고통 중에 너는 일생동안 그것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비교적 쉽고 한없이 영예롭게 그들의 과업을 이루는 대신, 적대적인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데 있어서 고통과 허무를 경험해야만 했다.

2. 부패와 심판 (Corruption and Judgment)

둘째로, 원시 시대 동안 인간은 계속 부패의 길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고 말았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에 빠지기 전의 출산은 신실한 대리 통치자들과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형상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육적 후손들이 하나님께 신실할 것이라는 전제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었다. 사실상 그들의 타락한 성품으로 인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였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리고 창세기 4 장의 가인의 족보가 말해 주는 것처럼, 가인의 계보가 늘어나고 땅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반역은 더욱 더 심해졌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문화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땅에 확장시키는 대신,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는 문화를 건설했다. 사실을 말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더욱 더 사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 창 6:5-7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6:5-7)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크고 그의 마음에 품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셨던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창조했던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땅에 기는 길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쓸어 버리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들었던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3. 장기 전략 (Long-Term Strategy)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한 장기 전략을 계획하신 것을 말해 준다. 사실상,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은 선택된 일군의 사람들을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상(사람)들에게 구원의 자비를 보이시며 그들이 그분의 목적들에 이바지하게 하셨다.

이 장기 전략에 대한 첫번째 암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곧 창 3:15 에 드러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 범죄하게 한 뱀을 저주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창 3:15) 원수됨(적개심)을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둘 것이고, 네 씨(후손)와 여자의 씨(후손) 사이에 둘 것이다. 그는(여자의 씨는/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비록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와의 씨를(후손을) 괴롭힐지라도, 궁극적으로 하와의 참된 자손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며 그들을 무도한 대역(大逆)으로 이끌었던 자를 정복할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롬 16:20 에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단언했던 이유이다.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당신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구원의 소망은 아담과 하와의 시대로부터 줄곧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다.

점점 더 타락해 가던 가인의 계보와 대조적으로, 신실했던 아벨을 대신하는 아담의 세번째 아들 셋이 태어났다. 창세기 5 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셋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며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경의를 표했다. 땅에서 사태가 아주 나빠져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임하는 홍수로써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실 때조차도, 신실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셋의 한 자손 노아가 있었다. 홍수가 나머지 전 인류를 전멸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출해 주셨다.

창 8:21-22 에 나오는 대로 원시 역사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의 목적들을 이루게 할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전략을 위한 길을 준비하셨다.

(창 8:21-22) 그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내가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동기에 주목하라.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죄 많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죄가 계속해서 그분의 타락한 형상(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도 인식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왕께서는 그분의 세상이 인류에게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이러한 안정에 대한 이유가 창 9:1 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창 9:1)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요컨대, 하나님은 자연계에 안정을 세우시고 세계적인 홍수의 위협을 제거하시므로 그분의 구원을 받은 형상 곧 사람들이 인간의 원래의 과업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분명하게 밝혀 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은 곧장 방해 없이 가는 길이 아닐 것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을 아셨고,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 엄습할 것을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미래의 어느 날 그분의 구원받은 신실한 형상 곧 사람들이 타락한 이 세상의 도처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자연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왕국은 에덴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 같고 왕 같은 형상 곧 사람들에 의해 온 세상으로 확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죄로 인해 생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세우시기 위해 그분의 형상들 중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장기적인 역사적 전략을 세우셨다. 원시 역사의 이러한 기본적인 개요들은 성경 역사의 나머지에 대한 선례를 만든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역사 중 가장 이른 시기 동안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다음 주요 역사적 단계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선민으로서 각별히 다루셨던 시기로 나아갈 수 있다.

IV. 이스라엘 국가 (NATION OF ISRAEL)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늘에서처럼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발전상을 묘사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진전되었는가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세 가지 주제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 시기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탐구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 시기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이 시기의 하나님 나라의 발전상을 조사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국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살펴보자.

A. 영토 (Place)

고대 이스라엘 역사 시기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려는 모든 것에 대한 선례가 된다. 창 12:1-3 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그의 특별한 종으로 부르신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2:1-3) 1 너는 네 고향, 네 족속, 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친히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3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 12:1 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본토를 떠나 그가 아직 본 적이 없는 땅으로 이주하도록 하셨다.

계속되는 창세기 12 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는 우르로부터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하란으로 인도하시고, 후에

하란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성지라고 부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특별한 땅을 그들의 본토로 받을 것임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구약의 나머지 부분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이 시기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실 일을 위한 지리적 중심지가 되었다.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어 그분의 나라의 원 중심지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어 그분의 나라를 그 원 중심지를 넘어 확장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르시어 그분의 나라의 원 중심지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사상을 살펴보자.

1. 원 중심지 (Original Center)

우리가 보았던 대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 중심지는 에덴이었다. 불행하게도, 많은 해석자들이 에덴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잘못 믿어 왔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하기 위해 실제로 에덴 동산 근처를 떠났다고 잘못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과 에덴의 땅 사이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처로 돌아오도록 부르셨던 것이다. 창 2:10-14 에서 에덴 동산의 경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보라.

(창 2:10-14) 강이 에덴에서 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줄기의 강이 되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 .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이었다. . .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였다.

네 개의 강들은 에덴의 경계를 이루었다. 비손과 기혼은 남서쪽으로 애굽의 북동쪽 지역에 있는 땅과 관련이 있었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가나안의 북동쪽으로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인 언급들은 약속의 땅도 이와 비슷한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 창 15:18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5:18)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 곧 애굽의 강으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의 땅을 주겠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애굽의 강"이 나일 강이 아니고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보다 작은 강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사실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북동쪽으로 유프라테스와 남서쪽으로 애굽과 경계를 이루는 땅을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본 것처럼 약속의 땅의 지리적 경계들이 에덴의 경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나안과 에덴을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을 때, 그분은 그를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곳으로 다시 부르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에덴이 태초에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중심지로 세워졌던 것과 같이, 원시 역사의 실패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종 아브라함을 그 지리적 중심지로 다시 부르시어 그분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약속의 땅과 에덴의 연관이 주는 두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땅 끝까지 확장하기 위한 근거지로 주셨다는 것이다.

2. 확장 (Extension)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인 지리적 목표가 아니었다. 그곳은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서는 너무나도 작았다. 창 12:3 을 다시 들어보라.

(창 12:3)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민족들의 반응에 따라 복과 저주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결국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비록 믿음의 확장이 이 약속의 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이 약속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금 기독교인의 믿음)이 다른 종족과 언어 그룹들에게로 퍼질 것인가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창 12:3 은 또한 지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두루 미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롬 4:13 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 이유이다.

(롬 4:13)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

아브라함은 그의 기업으로 한 조그만 땅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약속받았다. 가나안은 이 온전한 기업 곧 온 세상에 대한 첫 지불액에 불과했다.

약속의 땅의 원 경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구약의 여러 시기에 작은 규모로 일어났다. 모세와 그 이후 시대에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경계는 북쪽, 동쪽, 그리고 남쪽으로 확대되었다. 구약 이스라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구약 이스라엘의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로 돌려보자.

B. 백성 (People)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므로, 우리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점들로 한정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담당할 역할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들과 부합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고, 둘째는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형성한 것이고, 셋째는 이 나라의 백성을 인도할 공식적인 제사장들과 왕들을 지명한 것이다.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1. 이스라엘의 선택 (Selection of Israel)

우리는 원시 역사 시대 동안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서 한 가족을 선택하시어 세상에서 그분의 특별한 형상들로서 섬기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아담의 아들 셋이 의로운 사람들의 계보의 아버지가 된 것을 말해 주는 창세기 5 장에서 처음으로 한 특별한 가족이 선택되는 패턴을 본다. 그 후에 하나님은 셋의 가족을 그의 후손 노아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셨다. 당신은 또한 노아에게 세 아들 즉 셈, 함, 야벳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셈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형상 곧 아들이었다.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선택되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적적인 아들 이삭이 이 선택된 계보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히 명예로운 형상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열두 아들들 곧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다. 이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자로 사랑하시는 대상이란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호를 받았다. 인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백성이었다.

2. 제사장 나라 (Kingdom of Priests)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선택하시어 그들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원래의 제사장적 그리고 왕적 역할을 수행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출 19:4-6 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 매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 진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출 19:4-6)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참으로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보배가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 . .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었다. 우리가 본 대로, 그들은 “거룩한” 민족, 곧 다른 모든 민족들과 분리되고 구별된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 곧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지정된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담당했던 이중적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부름 받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역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 받은 것을 본다.

3. 제사장들과 왕들 (Priests and Kings)

셋째로, 비록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왕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특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로 발전하면서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제사장과 왕이란 전문화된 직책을 수여받았던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고 기록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가족들을 그분의 매우 특별한 형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과 왕직을 수행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기록한 봉사를 하도록 인도하게 하셨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은 일차적으로 예배와 제사와 찬양을 드리며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로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들로서 봉사하도록 임명받았다. 그들은 국가의 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로 봉사하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백성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기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려고 한다.

C. 진전 (Progress)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원시 역사 시대와 아주 똑같았다.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성취들과 결정적인 실패들이 섞여 있는 역사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향상을 보이긴 했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하지 못했다.

이 기간의 성경 역사는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만 다룰 것이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진전의 세 가지 시기를 말할 것이다. 그 시기들 중 첫째는 약속의 시기이고, 둘째는 출애굽과 정복의 시기이고, 셋째는 이스라엘 왕국의 시기이다.

1. 약속 (Promise)

첫째로, 우리는 약속의 시기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은 이스라엘 족장들의 시기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족장

시대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약속을 하셨다. 본질상 이 약속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번성의 약속들이고, 둘째는 지배의 약속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형상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다. 창 15:5 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을 들어 보라.

(창 15:5) "하늘을 향하여 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본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 역할을 잘 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거룩한 후손의 번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라를 통한 아브라함의 기적적인 아들 이삭의 출생이 크게 부각되어 있는 이유이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역사가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들에게 중점을 두는 이유이다. 구약의 초기 약속의 시기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번성이 구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되는 이유이다.

족장들에 대한 성경의 역사는 이러한 번성의 약속 뿐만 아니라 지배의 약속에도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거룩한 땅 가나안을 소유할 것도 약속하셨다. 창 15:7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5:7)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지배하고 거기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의 매장지로 가나안에 있는 조그마한 상징적 땅을 샀던 이유이다. 더 나아가, 이것은 야곱이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났다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왔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요셉이 유언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임을 확신시켰던 이유이다. 족장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킬 백성으로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지배권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때이다.

2. 출애굽과 정복 (Exodus and Conquest)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두번째 매우 중요한 시기는 출애굽과 정복의 시대이다. 이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그분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시려는 의도로 하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 주는 특별한 단락이 하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출 15:1-18 에 나오는 유명한 노래를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최초의 성경 단락이다. 이 노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훌륭한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말할 것이다. 출 15:13 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세의 확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출 15:13) 당신님은 한결같은 인애로 당신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이끄실 것입니다. 당신님은 권능으로 그들을 당신님의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고 계신 점에 있음에 주목하라. 우리가 본 대로, 약속의 땅은 에덴처럼 지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한 임재의 중심지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인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용어 [נָחַל] 나할이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양치기처럼 인도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양치기처럼 인도한다는 것(목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왕의 행위들에 대한 묘사이다. 하나님은 목자이신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거룩한 처소를 향하여 인도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왕권과 왕국이란 주제는 홍해 노래의 끝 곧 출 15:17-18 에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

(출 15:17-18) 당신님은 그들을 데려가다 당신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곳은 당신님이 당신님의 거처로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이여, 그곳은 당신님의 손으로 만드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출 15:17-18 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산 곧 성경이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밝혀 주는 성소로 이스라엘을 데려가고 계셨다. 그러면 무엇이 그 성산의 본질이 될 것인가? 첫째로,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거주하다"란 뜻의 히브리어 [גִּוְלָה] 야샤브]와 관련있는 "거처"로 번역된 단어는 자주 "왕의 즉위"를 언외에 내포한다. 이 단락에 있는 왕적 모티브에 비추어 그 성산이 하나님의 즉위의 장소일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이 출 15:18 이 즉시 명시적인 왕적 용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는 이유이다.

(출 15:18)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행동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옥좌 주변을 둘러 있을 백성으로 세우실 뜻을 갖고 계셨다. 바꾸어 말하면, 출애굽과 정복의 목적은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는 것이었다.

3. 제국 (Empire)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세번째 중요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왕과 성전을 가진 국가로 확립되었던 제국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할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나중에 있을 강의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사실과 왕정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필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것만을 살필 것이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왕과 성전이 있는 곳으로 확립함으로써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좌의 확립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할 왕가의 확립이었다. 대상 29:23 에 다윗 집의 왕좌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들어 보라.

(대상 29:23)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대신에 왕으로서 여호와와 왕좌에 앉았다.

다윗의 왕좌는 여호와의 왕좌였다.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대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 다윗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다른 형상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들로서 고위 공직을 맡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이 보통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궁전"으로 언급하는 성전의 건축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했다.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인도할 자들로서 세움을 받았다. 솔로몬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던 언약궤를 성전의 중심에 안치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윗에 의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대상 28:2 에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들어 보라.

(대상 28:2)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 곧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할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건축할 준비를 하였었다.

하나님의 왕좌는 하늘에 있지만 그분의 왕좌의 발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였다. 실제로,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다윗 왕가를 위한 수도로 만들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왕적 성소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동하는 족속으로부터 출애굽과 정복을 통하여 세워진 국가를 거쳐 마침내 예루살렘이란 제국적 도시에 왕과 성전이 있는 제국이 된 것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세워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건설한 것의 희망과 목적은 무엇인가? 요컨대,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요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인간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확장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시 72:1-17 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운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들어 보라.

(시 72:1, 8, 11, 17) 1 하나님이며, 왕에게 당신님의 공의를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당신님의 정의를 주십시오. . . 8 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 . 11 모든 왕들이 그에게 절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 . 17 그의 이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고, 해가 있는 한 지속되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받기를 바라고,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고 부르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볼 수 있다. 첫째로, 시편 기자는 다윗의 집에 대한 복을 위해 기도하며, 다윗 왕조가 공의와 정의의 왕조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윗 왕조의 통치에 커다란 확장이 있을 것을 알았다. 다윗의 집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게 될 것이고, 모든 왕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대표하는 다윗의 왕좌에 있는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시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확장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시편 72 편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당신은 창 12:3 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마음에 두셨던 목적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창 12:3) 땅의 모든 족속이 ...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것은 다윗 집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시 72:17 을 다시 보라.

(시 72:17)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그를 복되다고 부를 것이다.

여기에 창 12:3 에 대한 암시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퍼뜨릴 때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 왕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원래 목적이 성취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다윗의 집이 아브라함의 복을 세상에 퍼뜨려야 했던가? 요컨대, 그 결과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확장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이 시편 72 편이 19 절에서 울려퍼지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끝나는 이유이다.

(시 72:19)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72 편을 마감하는 이 구절은 족장들이 받은 약속들로부터 출애굽과 정복을 거쳐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모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기들은 모두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다윗 집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국경으로부터 땅 끝까지 확장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하늘을 가득 채운 것처럼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시 역사 시대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주제인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구약을 우리 시대에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약의 관점들을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V. 신약 (NEW TESTAMENT)

기독교인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과 신약 전체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신약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하나님 나라라는 구약의 주제의 완성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마 4:23 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요약했는지를 들어 보라.

(마 4:23)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하늘] 나라의 복된 소식[혹은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복음 곧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복음—신약의 참 핵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달려 있다.

앞에서 원시 역사와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었던 방식을 따라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도 세 가지 문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신약에 묘사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살펴보자.

A. 영토 (Place)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접근을 하고 있다. 첫째로,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이스라엘 땅인 것을 암시한다. 둘째로, 신약은 하나님 나라가 온 땅으로 확장될 것을 가르친다. 먼저 신약 시대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토를 살펴보자.

1. 중심지 (Center)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던 패턴이다. 태초에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을 중심지로 삼았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모세의 지도 아래 에덴 근처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 나라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지리적 중심지임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다. 예수님은 유아 시절 동안 잠시 애굽에 계셨던 것을 제외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평생을 보내셨다.

신약 시대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을 그 중심지로 삼았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족장 시대 동안 준 유목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여호수아 아래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도 아래서 수도와 궁전과 성전이 있는 제국적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지상 통치를 위한 커다란 진전들이었다. 그러나 구약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된 시대들 동안 하나님께 심히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거룩한 땅에서 추방시키셨다. 예수님의 때까지 수백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다섯 이방 제국들 곧 앗수르, 바벨론, 매대와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 추방되고 흩어지고 압제당했다.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이 국외 추방에 종지부를 찍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 중 남아있는 의로운 자들을 불러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기 위해 오셨다. 누가가 예수님의 초기 설교들 중의 하나에 대하여 눅 4:17-19 에 기록한 것을 들어 보라.

(눅 4:17-19)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그분에게 건네졌다. 그것을 펴시어, 그분은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보내시어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맹인들에게 다시 봄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나사렛 회당에 계실 때 예수님은 포로민들이 어느 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던 이사야 61 장의 예언을 읽으셨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가난한 자들”, “포로들”, “맹인들”, “억눌린 자들”을 언급한다. 이것들은 이사야 61 장에서 이스라엘 포로민을 묘사하는 용어들이다. 그러나 이 예언이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누군가 “복된 소식” 곧 복음, “자유”, “다시 봄”, 그리고 “해방”을 전파할 것이다. 복된 소식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압제를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었다. 그러면 누가 이 복된 소식을 성취했는가?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누가가 눅 4:20-21 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눅 4:20-21) 그리고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말아서 그 말은 자에게 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게 하신 분이다.

2. 확장 (Expansion)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삼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실상, 신약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온 세상으로 확장될 소망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전 시대들에서처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나라를 약속의 땅으로부터 온 땅까지 확장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우리는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세계적인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던 것을 보았다.

(마 6:10)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내내 이 주제를 계속 다루셨다. 사실상 그분은 제자들의 시선이 이 세계적인 목표에 계속적으로 집중되도록 하셨다. 마 24:14 에서 우리가 읽는 대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 24:14)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복된 소식의 메시지는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염두에 두며, 이제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보자.

B. 백성 (People)

우리가 본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전세계적 지상 나라가 그분의 하늘 나라를 반영할 것을 정해 놓으셨다. 이것은 그분의 형상인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일어날 것이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 결과로 그들은 그분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 곧 제사장들과 왕들을 높이시어 그분의 구원 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의 과업을 이행하는 일을 인도하게 하셨다.

이와 똑같은 문제들이 신약에도 역시 나타난다. 신약이 이 일들에 관하여 말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으뜸가는 형상이신 그리스도이고, 둘째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께 주어진 탁월한 지위를 고찰해 보자.

1. 그리스도 (Christ)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의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의 제 2 위이신 영원하신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신 이유를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올바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고, 그분의 십자가상의 대속적 죽음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많이 말한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임무를 살피고 예수님께서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 임무의 두 가지

측면이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시란 사실이다.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왕이시란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상응과 대칭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여러 번 이러한 연관을 언급했다. 요컨대, 그리스도는 아담이 가져왔던 저주를 완전히 바꾸셨고, 아담의 죄는 인간을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임무를 완수했다. 바울의 견해의 가장 간결한 표현은 아마도 고전 15:21-22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고전 15:21-22)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기대했을 법한 것과 어떻게 대조되는지 주목하라. 우리는 바울이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온다.”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하였을지도 모른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였던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인간의 죽음이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인간의 부활 또한 한 사람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야만 했었다고 말했다. 아담은 불신실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신실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가져 오셨다.

아담의 죄의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상에는 죽음에 대한 승리와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신약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강조를 하는 이유이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 곧 인간이 처음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던 모든 일을 행하신 사람이다. 그분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목적들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것 이외에 제사장과 왕이라는 왕국의 직책들도 수행하신다. 당신은 아담과 하와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신 것,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직분자들

곧 왕 그리고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는 공식적 제사장단에 의해 인도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과 왕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조금도 놀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히 4:14 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히 4:14) 우리에게는 승천하신(=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 이외에도, 신약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직을 수행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된다.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리아에게 고지될 때, 천사는 눅 1:32-33 에서 그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눅 1:32-33) 그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책을 온전하게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 아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제사장과 왕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온전히 임할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일지라도, 그의 제자들도 그 나라의 일부라는 것을 덧붙이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된다.

2. 신자들 (Believers)

신약 시대의 시초에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역할을 가졌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모였던 초대교회 전체도 유대인이었다. 오순절에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빠르게 로마 제국의 먼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신약은 다른 나라들에서 온 많은 개종자들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란 임무를 부여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새로워진 형상들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바울이 엡 4:24 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는

(엡 4:24)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베드로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할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신약 교회를 묘사한 이유이다. 그는 벰전 2:9 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벰전 2:9) 그러나 당신들은 선택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둠에서 당신들을 부르시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할 수 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른 출 19:6 을 언지시 암시하고 있었다. 이 암시를 통하여 그가 분명하게 밝힌 것은 지상의 모든 족속으로부터 온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목표 곧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분담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백성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주제 곧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살필 것이다.

C. 진전 (Progress)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진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나중의 강의들에서 볼 것이지만,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올 것이란 인상을 받기 쉽다. 악이 땅에서 갑자기 근절될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차게 될 것이고,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충만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대의 정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그분을 메시아로서 따르기 보다는 오히려 배척하였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요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 13:31-32 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라.

(마 13:31-32)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 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으나 그것이 자라면 어떤 채소들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이 짧은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격변하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때가 지나면 성장한 겨자 나무처럼 세상이 지금까지 알아 온 나라들 중 가장 큰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신약의 나머지 부분이 말해 주듯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비교적 작고 조용하게 예수님의 지상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온 땅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 강좌의 강의들을 하는 동안 내내, 우리는 자주 신약 시대의 세 가지 주요 단계들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1. 개시 (Inauguration)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사도들)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곧 개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2 천여 년 전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사도들)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개시하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엡 2:20 에서 교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이다.

(엡 2:20) [당신들은 =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모퉁잇돌이 되셨다.

2. 존속 (Continuation)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역사 전 기간을 망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존속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시기이다. 마 6:33 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때인 것이다.

(마 6:33)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건설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의 문화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3. 완성 (Consummation)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요한이 계 11:15-16 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의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방식을 들어 보라.

(계 11:15-16) 일곱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었다. 그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의 온 나라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2 천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개시하셨던 일을 되돌아 본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존속하는 동안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임할 날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고 소망한다. 이것은 구약 신앙의 핵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다. 구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시, 존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VI. 결론 (CONCLUSION)

본 강의에서 우리는 구약에 대한 큰 그림을 파악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요한 성경 주제를 소개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분의 천상 통치가 땅에 임하기를 계획하셨던 것을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시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 시대에 걸쳐서 이 목표를 향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았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구약에서 가장 포괄적인 주제이고 구약 전체를 하나로 묶는 주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 대한 개관을 계속하며 자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돌아 올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신약 신자들인 우리가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에 대한 안내서로서 구약을 배울 기회를 얻을 것이다.

VII. 연구의 길잡이 (Study Guide)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1.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주권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서술하라.
2.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3. 원시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처음에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서술하라.
4. 하나님 나라의 설립과 준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백성의 역할을 서술하라.
5. 원시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약술하라.
6. 고대 이스라엘의 시대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무엇이었는가?
7.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고 준비하였는가?
8. 고대 이스라엘의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서술하라.
9. 신약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10.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1.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설명하라.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1.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당신들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분이 마 6:9-10 에서 의미하신 것은 무엇인가?
2.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이 좋다고 평가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타락한 상태에서부터 땅을 구원할 장기 전략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비추어 기독교인들은 땅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3. 하나님 나라의 전략에 있어서 백성은 그분이 땅을 그분의 나라로 준비하고 계시며 사용하시는 그분의 선택된 수단이다. 이 사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신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개별적인 봉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4.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천상에서 드러나신 대로 지상에 도 드러나게 될 때 지상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5.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연관은 무엇인가? 이 연관을 아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가?
6. 이 강의를 통하여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